

육아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출산력 회복을 기원하며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지난 해 우리 사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인 1.22를 기록했습니다. 육아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왜 우리가 아이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번 세대에 좀 더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차분하고 긴 호흡으로 출산력 회복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GDP 대비 0.5%까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프랑스가 GDP 대비 3%의 예산을 출산과 육아에 쏟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오랜 시간 육아를 부모의 개인적 문제로 접근했던 우리 사회로서는 대단한 노력을 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할 만큼 많은 육아지원기관이 세워졌고, 육아지원 바우처를 통해서 부모의 선택권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육아환경이 개선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늦게, 아이는 생각해보고 결정하지는 미혼 남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촉구하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들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보다는 오히려 내 자녀를 이미 뒤쳐진 출발선에 세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해져 아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거나 한 자녀만으로 충분하다는 의사 결정에 이르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과 영토, 인구나 같은 전통적인 국력의 요소가 취약한 우리 사회는 그간 교육열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로 산업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른 국가에 도움을 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에 지식기반이라는 시대적 조건은 국가번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원과 영토가 부족해도 창의적 다중지능을 갖춘 인적자원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이 우리 국력의 핵심이라는 점은 반대급부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한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를 낳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경쟁에서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각종 '스펙'을 길러주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유아기부터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이 시작되고 그 비용에 대한 심리적 초조감은 젊은 부모로 하여금 아예 자녀를 적게 낳는 편이 유리하다는 결정에 이르게 합니다. 최근의 출산관련 연구들은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부모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이같은 어려움의 해결책을 우리는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선진화로부터 찾고자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줄 수 있다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가 선진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인프라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타당한 수준의 양육지원이 보편화되고 충분한 정도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신뢰할 만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의 양성 및 임용 체제가 개선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여성들의 자녀,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의 영유아들을 위한 육아 지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애써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함께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2010년이 육아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출산력 회복의 기점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